

국내·외 목조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구원희 · 신호준 · 백민호*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국외(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문화재 안전관리 현황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문화재 안전관리 선진사례 집중분석을 통하여 국내 문화재 안전관리 수용성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요

본 연구는 국내 문화재 안전관리와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의 문화재 안전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비교 분석

문화재는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여러 조직에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국내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총괄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 관리 및 지방정부 위임 관리를 실시한다. 일본은 문화청을 중심으로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문화재를 보호 실시하며 영국은 문화유산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문화재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프랑스는 문화통신부 건축문화유산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미국은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주·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Table 1. Comparison with Safety Management Status of Wooden Cultural Heritage at Home and Foreign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주관 기관	문화재청	보존기술 및 훈련국립센터	문화청	문화유산청	문화통신부 (건축및문화유산국)
지방 정부	광역시/도, 지자체 문화재 관련 과	주, 지방정부	도도부현, 시정촌 문화재 관련 조직	지방자치단체	레지옹, 데빠르트망, 꼬뮌
관련 보호 법/제도	-문화재보호법 -소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역사보전법 -고대유물법 -사적법 -문화재보호입법 -문화재보호에 관한 주요연방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등록제도 -문화재수리제도	-국립문화유산법 -역사적 건축물과 기념물법 -고대기념물 및 유적지법 -등록 건축물 보존지역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보호법전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률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특징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광역/지자체와 연계하여 문화재 안전관리를 실시함	문화재보호의 책임은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주,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실시함	문화청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 문화재를 보호 실시함	문화유산청을 중심으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 보존, 등록 작업, 국민에 대한 홍보, 건축물 정보와 기록, 사진 등록 및 보관	문화통신부 건축 문화유산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

3. 국내·외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안전관리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문화재에 대한 화재안전절차 및 소방시설들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시사점이다. 일본은 개인소유의 등록유형문화재 건조물, 토지 등에 대해서는 세액산출을 위한 가액을 당해 가격의 1/2로 경감하며, 일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건조물의 가옥 또는 부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수리공사와 방재설비 설치 공사를 같이 시행하며 별개로 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문화유산청외에 산하 기관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각종 정보기록, 홍보, 보관에 대한 다양한방면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는 문화재관리에 대하여 보호구역(area)를 형성하며 문화재를 비롯한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세계해택을 통하여 적극적인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유도해야하고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화를 통하여 의무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와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으로서의 인식확산과 문화력(power of culture) 강화의 극대화를 추진해야하며 다양한 형태의 문화재교육 및 프로그램 수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능동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요구된다.

4. 결론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의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에서는 중앙정부인 문화재청에서 총괄 관리를 하며 사업소에서 직접관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에 위임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일본을 비롯한 국외 사례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관리권한에 대하여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에 부여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또한 안전관리측면에서가 아닌 문화재에 대한 홍보, 기록, 관리적인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동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문화재 안전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위해 문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확대가 필요하고 문화재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문화재청의 연구용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문화재청(2012), 가칭 문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마련 연구보고서
2. 유진호, 미국의 문화재 보호법제, 한국법제연구원